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존 위협에 시달리는 멕시코 ‘침묵의 원’ 사역자들



멕시코 중부는 산업과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비즈니스와 관광으로 주목받는 명소지만, 모든 사람이 이곳에서 따스한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 VOM)에 따르면 이 지역은 ‘침묵의 원’(The Circle of Silence)이라 불린다.

이 ‘침묵의 원’은 멕시코 중부 8개 주 115개 카운티를 포함하는데, 이 지역은 고대 이교의 관습과 로마가톨릭이 종교적으로 혼합된 ‘기독교-이교주의’라고 불리는 강력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개신교 신자들, 특히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교회 개척자들이 정기적으로 박해에 직면하고 있다.

2020년, 마테오와 엘레나 부부는 다섯 살 딸 사라와 함께 ‘침묵의 원’ 지역으로 이사해 교회를 개척하려 했다. 마테오는 한국 VOM과의 인터뷰에서, 그 지역에서 사역자들이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전했다. 처음 그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 마테오는 일자리와 집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마테오는 대학 강사 자리를 제안받았으나, 그가 개신교인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대학 관리자들은 해고 사유를 찾기 시작했다. 그의 페이스북, 이메일 계정, 은행 계좌가 모두 해킹당했으며, 결국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해고당하고 말았다.

엘레나에게 개인적인 문제를 자주 의논하던 친구 린다는 자신에게 성경 구절을 나눠준 것이 계기가 되어 집에 있던 종교적 우상과 그림들을 모두 불태우기로 결심했다. 린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린다의 딸 카리나는 엘레나에게 저주와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엘레나는 카리나를 위해 기도했고, 이후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다. 하지만 마을의 가톨릭 사제가 교구민들에게 엘레나와 남편 마테오를 ‘처리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부부는 마을 주민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됐다. 이웃은 마테오 부부에게 저주를 걸어 결혼 생활을 파탄내려 했고, 심지어 마테오의 집 문 앞에 피를 뿌리기도 했다.

부부의 다섯 살 된 딸조차 펄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선생님에게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했고,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같은 반 친구들에게 외면당했다. 상황은 더 악화됐다. 협박 문자를 받거나 자동차 타이어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됐다. 계속되는 위협과 죽음의 두려움을 느낄 때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마침내 마테오는 지역사회 내 가정들과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 여전히 감시를 받는 마테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적대감 때문에 어떤 때는 절망스럽기도 하지만, 마테오와 엘레나는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15명의 성도를 인도하고 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사도행전 20:22-24)

하나님, 복음이 환영받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순종을 다하는 ‘침묵의 원’ 지역 사역자들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반복되는 위협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케 하소서. 마테오 부부와 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시라 생명보다 귀한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혀 담대히 말씀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멕시코에 복음을 향한 침묵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스코틀랜드 국민당, 헌법에 '낙태 권리' 명시 공약 발표...시민들 충격

스코틀랜드국민당(SPN)이 헌법에 '낙태할 권리'를 명시하겠다고 밝혀, 낙태를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4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SPN은 당의 옐긴 지부가 제안한 결의안을 공약에 포함하는데 이어 이 결의안은 1일 스코틀랜드국민당 전국 대회에서 거수투표로 통과됐다. 스코틀랜드국민당의 웹사이트에는 결의안이 채택 되면 스코틀랜드국민당의 정책이 되며 "정부에서 추진되거나 웨스트민스터에서 옹호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의안은 합법적인 낙태를 "의료 및 신체 자율성의 근본적인 측면"이라고 설명하며 "정치적 또는 사법적 결정의 변화하는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생명운동 단체 라이투라이프 영국의 대변인 캐서린 로빈슨은 이 제안이 실현되면 어떤 이유에서든 출산 전까지 낙태가 합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야고보서 1:21-22)

하나님, 피조물의 심령에 죄의 누룩이 퍼져 잉태된 생명을 지키기보다 어린 생명을 죽이는 일을 권리라고 말하는 스코틀랜드 소식에 가슴을 찢으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신 사람을 해하는 법령을 세워 영과 육에 넘치는 악을 쌓고 있는 이들을 꾸짖으사 엄위하신 주 앞에 서는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땅의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진리를 따라 행하는 은혜를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귀하신 분으로 대하며 주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소서.

▲ 수단, 아사 직전 기아 위기

수단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으로 악화해 수많은 사람이 아사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3개의 국제 구호기관이 발표했다고 4일 뉴시스가 전했다. 노르웨이 난민위원회, 덴마크 난민위원회와 국제 자선단체 메르시 코퍼레이션은 이날 공동 성명서에서 국제사회가 침묵을 지키는 동안 수단의 모든 국민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간절히 호소했다. 또한 현재 수단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2,500만 명 이상이 극심한 식량난에 직면해 있으며 수많은 가정이 하루에 한끼로 연명하거나 나뭇잎과 벌레까지 먹으며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단 정부는 해외 구호단체와 해외 보고서의 경고를 무시하며 "과장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수단에서는 2023년 4월 수단 정부군과 반군(RAF)의 내전으로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됐고 경제는 마비되어 기아와 기근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더욱 악화됐다.

여호와와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시편 33:18-19)

하나님, 내전으로 인해 경제가 마비되고 기근이 심각해 수많은 사람이 아사 직전 위기에 놓인 수단을 건져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구호 기관의 호소에 국제사회가 귀 기울여 속히 식량이 공급되어 굶주린 자들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에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죽음 뒤에 임하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아 영혼의 구원을 간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혼의 참된 안식과 만족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하늘 아버지의 본향을 소망하는 수단 되게 하옵소서.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갠단 위협에 집 떠난 아이티 여성들, 성폭력 피해로 ‘고통’**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갠단 폭력을 피해서 난민 생활을 이어가는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인구기금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아이티 주민들을 위한 임시 캠프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비판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아이티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 피해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유엔인구기금은 “14곳의 캠프 내 화장실과 샤워실 절반 이상이 남녀 공용”이라며 “샤워실 문에 자물쇠가 없으며, 야간 조명이 없는 곳이 허다했다”고 지적했다. 아이티에서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사례는 1-5월 4천 건에 육박했는데, 대부분 강간 범죄였다고 한다. 고통을 겪은 피해자의 61%는 주거지를 떠나 생활하던 이들이다.

앞서 국제이주기구(IOM)는 지난 3월 이후 약 3개월간 아이티 전역에서는 약 58만 명의 국내 실항민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국내 실항민은 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통상적 거주지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으나 국경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뜻한다.

수십 년간 빈곤과 자연재해, 정치적 불안정에 시달려 온 아이티에서는 2021년 7월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이후 갠단이 활개 치며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치안 안정화를 위해 현지에 파견된 케냐 경찰관 수백 명이 2개월째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현재 아이티에는 400여 명의 케냐 경찰관이 파견돼 있다. CNN은 케냐 경찰관 지원 행정당국이 급여 지연 지급을 인정했다며, “이르면 이번 주중에 입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실제 이들은 현지에서 경찰이라기보다는 군에 더 가까운 교전과 고된 순찰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티 지원 케냐 경찰부대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활동 성과를 강조하며 “(우리는) 아이티 경찰들이 갠단 통제에 놓였던 공항 등 주요 인프라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향후 이곳에는 케냐를 필두로 방글라데시, 베냉, 차드, 바베이도스 등지에서 2천500명의 경찰이 배치될 예정인데, 그 시기는 미정이다. 현재 선발대 역할을 맡은 케냐 경찰은 인력과 무기류 등 자원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며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시편 70:5)

하나님, 갠단들의 폭력을 피해 난민 생활을 하는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이 난무하여 끔찍한 나날을 보내는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체치 마시고 이 고통에서 건져주옵소서. 무자비한 범죄로 악을 일삼는 갠단 조직과 나라의 혼란을 틈타 여성들을 공격하여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자들을 꾸짖으사 주의 심판의 때가 임박하였음을 깨닫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주의 교회와 경찰들을 통해 베푸사 고통하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된 주님의 신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우크라이나 어린이 4명 중 3명, 전쟁으로 정신건강 위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어린이 4명 중 3명은 정신 건강 위기가 심화돼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어린이들의 정서적 불안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유엔인권사이트 릴리프웹이 2일 전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최근 발표한 ‘평화로운 하늘을 위해: 전쟁 중 우크라이나 교육과 아동 복지’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부모·보호자·교사 등 약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9명의 어린이는 심리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린이들 중 가장 흔한 문제는 안전하지 못하거나 두려운 느낌(73%), 학습에 대한 흥미 상실(64%), 슬픔 또는 낮은 자존감(54%)이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2023년 11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의 12개 지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어린이 3명 중 1명은 자국의 끔찍한 상황으로 인해 분노와 좌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으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요한일서 4:18)

하나님, 2년 반 동안 이어진 전쟁으로 끊임없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상한 심령을 돌봐주시옵시오. 우크라이나의 교회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들려주어 저들이 피난처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전쟁의 공포 속에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하여 분노와 좌절 속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내어쫓게 하소서. 그리하여 상황 때문이 아닌, 저들의 심령 안에 복음으로 감사가 넘쳐 주를 예배하게 하옵소서.

▲ 유니세프 “방글라 어린이 200여만 명, 홍수로 생존 위기”

방글라데시에서 최근 몬순(우기) 폭우로 발생한 홍수 탓에 어린이 200여만 명이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연합뉴스가 유엔 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을 인용해 지난달 31일 전했다. 유니세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방글라데시 동부지역에서 34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해 주택과 학교, 마을 등이 휩쓸려 파괴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유니세프는 이들 어린이가 식량과 구호품도 없이 지내고 있다면서 정부 당국과 자원봉사자들이 구조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엠마 브리검 유니세프 방글라데시 부대표는 “너무 많은 어린이가 가족과 집, 학교를 잃어버려 현재 극한의 궁핍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 동부지역에서는 지난주 발생한 홍수로 어린이들을 포함해 약 560만 명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지금까지 최소 52명이 사망했다.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시편 69:15-16)

하나님, 방글라데시에 34년 만에 최악의 홍수로 인해 생존 위기에 처한 이재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오. 특별히 가족을 잃어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극한의 상태에 있는 어린이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자들을 돌보사 속히 구조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소서. 홍수로 인한 큰 물이 이들의 심령까지 휩쓸어 낙담하지 않도록 참 소망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포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를 믿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찬송케 하옵소서.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이다”
‘쿠데타 경제파탄’ 미안마의 비극...SNS로 장기 파는 빈곤층



지난 3년여 동안 군사 쿠데타와 내전으로 경제가 파탄에 이른 미안마에서 생계를 위해 소셜미디어로 자신의 신장 등 장기를 내다 파는 빈곤층이 늘고 있다. 지난 31일 (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미안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 사는 배달 기사 마웅 마웅(가명)은 2022년 말 반군을 위해 물품을 배달한 혐의로 군사정권에 의해 몇 주 동안 붙잡혀서 고문당했다.

그 기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의 아내가 돈을 빌려야 했고 그는 이후 풀려났지만, 일자리를 잃고 무일푼에다 빚더미에 앉게 됐다. 절박한 처지가 된 마웅 마웅은 결국

페이스북에 자신의 신장을 판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당시 “돈을 위해 강도질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것 말고는 다른 살아남을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CNN은 지난 수년간 미안마에서 마웅 마웅처럼 생존 위기에 몰린 사람들이 늘면서 장기를 팔겠다는 온라인 게시물이 점차 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안마는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3년 넘게 군사정권과 반군 간 내전을 겪으면서 경제가 추락했다. 내전으로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고 실업자는 급증한 가운데 생필품 가격은 대다수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치솟았다.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미안마 인구 5천400만 명 중 절반 가까이가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 이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많은 미안마인들은 장기 판매를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다.

마웅 마웅의 경우 중국계 미안마인 사업가에게 신장을 1천만 쯤(약 412만 원)에 팔았으며, 인도에서 이식 수술을 받았다. 인도 법상 장기 기증은 친척 사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중개업자들은 가짜 서류를 통해 장기 판매자를 친인척으로 위장시킨다. 마웅 마웅도 이식 대상자의 가짜 사위로 위장해 수술을 받았으며, 병원에서 자신과 같은 수술 자국을 가진 다른 미안마인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마웅 마웅은 신장 수술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회복이 더디고, 그가 신장을 팔아 번 돈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미안마, 아프가니스탄, 네팔 등 저소득 국가에서는 장기 매매가 빈번하지만, 신장을 판 사람들은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 마웅 마웅은 “오래 살아봤자 15-20년 더 살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당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기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시편 59:16-17)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장기 판매를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끔찍한 상황 앞에 놓인 미안마 땅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백성을 돌봄보다 자신의 원함을 위한 싸움으로 쿠데타와 내전을 멈추지 않는 통치자들을 꾸짖어 주사 돌이켜 전쟁의 소리가 그치게 하시고 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땅에 유일한 피난처는 환난 당한 자의 요새인 주님의 사랑이오니 교회를 통해 그 십자가 사랑이 들려져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영원한 소망인 예수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소서.

▲ 브라질 아마존 지역서 지난달 화재 3만 8,266건··8월 기준 14년 만에 최다

44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는 브라질에 아마존 지역의 8월 화재 발생 건수가 14년 만에 최다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외신을 인용해 2일 전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는 아마조나스주를 비롯한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 지난 한 달간 3만 8,266건의 화재가 감지됐다고 밝혔다. 이는 8월 기준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아마조나스에서만 1998년 8월 이후 가장 많은 1만 328건의 화재가 확인됐으며, 이는 지난해 8월 (5,474건)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운 88%의 증가율을 보였다. 현재와 같은 상황은 습지를 가축 목장을 위한 목초지나 밭으로 바꾸기 위해 삼림을 벌채한 뒤 일부러 불을 지르는 '화전(火田)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아마존은 8-10월이 건기라 공기가 따뜻하고 초목이 건조해 화재가 더 빠르게 확산되는데 주민들이 이런 조건을 이용해 화전을 만들고 있다고 G1은 보도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연기 때문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다”며, 공기 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여호와와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시편 29:7,10-11)

하나님, 44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과 함께 아마존 지역에 잇따라 발생한 수만 건의 화재로 고통하고 있는 브라질을 돌봐주십시오. 습지를 목초지나 밭으로 바꾸려 일부러 불을 지르는 불법 화전 관행이 근절되게 하시고, 인간의 탐심이 낳은 큰 재해 앞에 이 땅이 회개하며 주께 나아오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왕으로 좌정하시는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소서. 성도들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얻으며 평강의 복을 받는 브라질 되게 하옵소서.

▲ 호주 상원, 낙태 후 살아남은 아기 보호 법안 부결

호주 상원은 낙태 후 살아남은 아기를 보호하는 법안을 부결시켰다고 라이프뉴스가 29일 전했다. 이 법안은 낙태 후 생존한 아기를 위한 적절한 의료 및 치료를 요구했지만 반대 31명, 찬성 18명으로 부결됐다. 퀸즐랜드의 조산사 루이스 애드셋은 이번 달 의회에서 살아서 태어난 아기가 죽는 것을 정기적으로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기들이 짧게는 2-20분에서 길게는 3-5시간까지 살아 있었다”며 “낙태 후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폐기물 처리에 사용되는 용기에 넣어져서 덮인 채로 방 밖으로 나가 죽이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이사야 1:27-28)

하나님, 어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법안을 반대하는 호주 상원의 참담한 소식 앞에 우리보다 더 분노하고 아파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선이 무엇이며, 죄가 무엇인지 자각할 수 없을 만큼 심령에 문둥병이 걸려버린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진리로 책망하여 주시고 고쳐주소서.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가진 호주교회가 더욱 말씀 안에서 깨어나 세상 풍조와 사탄에 대항하는 영적 전쟁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께 돌아온 자들이 십자가의 공의로 구속함을 받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호주로 새롭게 하소서.